

해외전시 기획 및 추진 과정에 대하여

-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일본 특별전 사례를 중심으로 -

정 호 섭 *

I. 머리말

서양의 경우 최초의 대학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 바젤대학 박물관(1671년)이나 최초의 근대적 시설을 갖춘 대학박물관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애쉬몰리언 박물관(1683년)이 3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데 비하여 한국의 대학박물관은 이제 약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1934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은 현재 약 90여개의 대학박물관들이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회원교로 등록함으로써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박물관은 기본적인 업무영역인 전시, 교육, 발굴 및 조사, 유물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일부 기관들은 대학박물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과 아울러 대학박물관의 활동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도 1996년-1998년에 한국의 대학박물관 최초의 해외전시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선비의 묵향” 특별전을 미국의 6개 대학에서 개최한 바 있다.¹⁾ 또한 2003년에는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일본에서 특별전시를 개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이는 또한 일본에서 개최한 국내 대학박물관 최초의 전시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박물관은 그동안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전시영역을 확대하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전시활동에 있어 대학박물관들에게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해외 전시 자체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전시준비에 있어 많은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인 예산과 인원이 충분하지 못한 한국의 대학박물관으로서 는 전시를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는 대학박물관 역할의 창출과 전시영역의 확대라는 과제 역시 대학박물관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과제일 것이다.

* 고려대학교박물관 학예사

1) 미국 6개 대학은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Oregon, University of California L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Pennsylvania이다.

여기서는 향후 해외전시를 준비하게 될 대학 박물관원들에게 해외 전시의 기획과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견해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II. 해외전시 기획

전시는 일반적으로 전시작품, 공간, 조직, 관람객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 전시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개념단계(아이디어 수집) - 개발단계(기획 및 전개) - 기능단계(전시개최 및 관리) - 평가단계(전시 평가)로 나눌 수 있다.²⁾ 이 중에서도 개발단계에 해당하는 전시 기획은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전시 기획을 위해서는 기획자, 전시주제와 내용, 전시일시 및 기간, 전시 장소, 전시 목적, 전시 방법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이 고려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전시의 목적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전시의 목적과 그 목적을 통해 이루어내는 성과는 결국 전시를 개최하려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또한 전시기획 단계에서 전시 개최를 결정하는 최고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최고결정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해외 전시의 경우 자체의 공간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전시의 목적과 그것에 관련한 기대 효과에 대하여 분명한 기획의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전시의 전시 기획은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의 특별전은 공동 전시였기 때문에 오사카역사박물관 학예원과 고려대학교박물관 학예원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시 주제와 내용은 상호 철저한 조사연구와 최신 정보를 근거로 기획하였다. 즉 일본 내에서 최근의 경향에 따른 전시의 주제와 내용이 명품전시가 아니라 특별한 주제가 있는 전시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전시명이 “한국의 마음과 삶 - 고려대학교박물관소장품전”으로 정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시의 명칭은 전시회를 알리고 전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전시명만으로도 그 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볼 수 있다. 전시의 내용은 외국인들이 주관람객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특별전의 내용은 한국인의 의식주생활, 한국의 생활용구에 그려진 문양과 상징, 한국인의 평생의례, 한국의 민간신앙과 놀이 등의 소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소주제들에

2) 이보아, 2000, 『박물관학 개론』, 187-208.

해당하는 전시품을 통해 한국인 본연의 심성과 삶의 방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고전적인 박물관의 전시가 유물이나 미술작품을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던 데 비하여 현대적인 전시는 적극적으로 관람객의 수요나 기호를 파악하여 기획에 반영하는 상호소통적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한국문화를 소개함에 있어서 명품을 나열하는 전시보다는 소주제로 구성된 특별한 주제가 있는 전시가 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나 유사성을 비교 검토하는 것도 전시기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시 스타일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전시의 경향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전시내용과 관련한 출품 유물은 중요민속자료 2점이 포함된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품 183건 211점이었다.

전시 일시와 기간은 전시 개최기관의 사정과 대내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의 특별전은 오사카역사박물관의 2003년 1년간의 특별전 사정에 의해 조정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특별전시회 개최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대체로 적게는 1년 길게는 3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일본 특별전은 전시회 개최 1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전시시기와 관련하여 전시 개최지의 사정에 맞춰 전시시기를 잡아 전시를 진행하는 것도 공동전시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배려라 할 것이다. 2003년 7월 23일 - 2003년 9월 8일까지의 전시기간은 전시회 개최 시기로는 매력적인 시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사카역사박물관의 다른 특별전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관자체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였다.

전시 장소는 오사카역사박물관의 6층에 위치한 기획전시실이었다. 오사카는 고대로부터 한국과의 문화교류가 가장 많은 일본의 도시 중 하나로 현재에도 재일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점은 재일본 한국영사관이나 한국문화원, 민단본부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전시목적은 전시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시목적에 있어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과 고려대학교박물관이 서로 상이하겠지만, 고려대학교박물관으로서는 해외전시를 통한 박물관의 대내외 위상 강화(국내 대학박물관 최초의 일본 전시), 전시와 학술사업 등 제반 문화사업 교류를 통한 협력증진(일본내 박물관), 향후 신축되는 100주년 기념관내 박물관 전시계획 및 설계 등에 관한 벤치마킹, 지속적인 해외전시의 경험을 통한 국제화 초석마련, 고려대학교와 박물관의 홍보, 신축 박물관 이전관계로 외부전시가 불가피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 한국의 민예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와 소개 등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고려대학교박물관의 해외 전시는 우선 대학박물관 최초의 일본전시라는 점과 신축 박물관의 벤치마킹, 외부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의 요소가 작용하여 이루어진 전시였다는 점에서 전시회 개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시 방법은 공동전시 기관의 기획 전시실 상황 및 예산정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는 오사카역사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획전시실을 실견한 경험도 있었고 전시공간의 도면을 미리 확보하여 전시공간에서 어떠한 연출과 효과가 가능할 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도 있었다.

이상의 6가지 사항은 일반적으로 전시기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점은 해외 공동전시의 경우 공동부담 예산범위와 정도, 전시관련 행사, 전시진행 일정 등이다. 특히 예산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박물관이 안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일본 특별전은 전년도 예산 신청시에 특별예산의 형태로 신청하여 2003년도 예산으로 배정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물론 외부기관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전시관련 행사는 오사카역사박물관이 주관하고 고려대학교박물관이 협조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시관련 행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인과 교포를 위한 한복입어 보기 체험, 한국의 전통무용과 음악공연, 한국문화 강연회, 한국의 자수체험 등의 부대행사가 열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전시진행 일정도 오사카역사박물관과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일정이 상호 조정되어 진행되었다. 결국 일본 전시 기획안에는 위와 같은 전시명, 전시시기, 전시장소, 전시목적, 전시내용, 전시일정, 전시예산, 전시관련 행사계획, 전시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업무에 대한 인력, 포장, 운송, 보험, 보도자료 작성 및 관계 인사 초청 등의 전시 행정 업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시기획의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학예원의 전시 주제와 내용을 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학예원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할 것이고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전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전시의 경우는 해외의 학예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전시 기획안은 협찬, 후원뿐만 아니라 품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것은 전시에 대한 전체 사업성이나 기대효과 등 제반문제를 검토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해외 전시 기획 과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대표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언어적인 문제이다.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상호 입장 조율이나 시각차 등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국가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물론 통역이나 번역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획자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좋은 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

둘째, 예산에 대한 문제이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라 하더라도 주최자에 따라 전시비용

의 소요액의 달라질 수 있다. 해외전시 개최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전시라 하더라도 상호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으면 전시를 개최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의 공동전시는 양 기관이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전시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예산부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편리한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셋째, 전시 진행과정상에서의 업무방법의 차이나 상호 의견 차이에 대한 문제이다. 국가마다 업무방법이 다르고 상호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지나치게 한쪽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방적인 양보도 다소 문제가 있다. 세밀한 검토 후에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결정은 더욱 신중한 입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상호문화적인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 공동 전시의 경우 생활습관이나 의사표현방식, 예절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상호 문화에 대한 진지한 이해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긴밀한 인간적 유대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양기관 기획자간의 긴밀한 유대는 업무상의 효율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상호 교류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많은 전시들이 기획되고 있다. 좋은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 박물관이 직면하는 큰 문제는 대중성과 교육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데 있다. 학예원의 직분 중의 하나는 오브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단순화하고, 이를 흥미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여전히 관람객에게 교육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흥미위주의 전시기획도 문제이지만 너무 이해하기 어렵거나 교육적 효과가 없는 전시도 문제일 것이다.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 전시의 성공여부에 대한 기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최근의 상업적인 전시는 관람객의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여 기획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학술적 전시는 그 성공여부에 대한 기준이 상업적 전시와는 다르다. 물론 계량적 수치로서의 관람객수도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전시를 개최함에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어서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관람객수는 언론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시 홍보에 대한 측면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시기획을 위해서는 전시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와 최근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근거로 한 전문성이 반영된다. 또한 전시의 주제와 내용은 관람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전시기획자는 반드시 관람객에 대한 사전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전시 기획에 임해야 한다. 특히 해외전시 기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람객이 문화적, 역사적 경험이 다른 외국인이라는 점과 외국에서 자라난 한국인이라는 점 등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람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친숙한 전시물과 주제로 기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잘 알려진 유물이 포함된 전시는 주목을 받기 쉬운 여건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관람객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법으로 관람객의 기대나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획과 더불어 다양한 전시관련 행사에 대한 기획도 관람객이 전시 관람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Ⅲ. 해외전시 추진 과정

여기서는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과 고려대학교박물관의 공동특별전의 추진 과정을 통해 대체적인 전시 준비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 전시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국내 전시와 다른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어서 사전에 미리 이러한 조건에 대한 인지는 전시 준비과정에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03년 일본측과의 공동 특별전은 고려대학교박물관장, 학예원 등이 일본 박물관과 사전에 의견조율과 지속적 접촉에 의해 이루어진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은 새로 신축 예정인 박물관의 벤치마킹을 위해 관장과 학예원이 일본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오사카역사박물관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었고, 2002년 한·일월드컵 기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명보전”에 고려대학교박물관 유물을 다량 출품함으로써 오사카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의 전시 연출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 두 기관사이의 이러한 몇 번에 걸친 접촉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고 두 기관사이의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의 향후 특별전에 대한 입장과 정보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체로 1-2년 혹은 몇 년 전부터 특별전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박물관의 경우를 살펴보다도 하나의 박물관 특별전 개최가 몇 년간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려대학교박물관은 사전 접촉과정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전 개최에 대한 오사카역사박물관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 개최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시주제와 전시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오사카역사박물관의 특별전시 개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확인한 후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는 2002년 진행될 특별전과 관련하여 전시기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전 개최에 대한 특별예산 신청을 통해 특별전 예산을 학교로부터 지원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시기획안과 예산신청을 통한 예산이 확보되어, 전시의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 주제에 적합한 출품유물의 선정이 이루어졌다. 주제에 맞는 유물선정과 목록작성, 그리고 작성된 목록과 함께 유물사진자료를 상대기관에 송부하였다. 오사카역사박물관에서는 일단 사진 상태로 유물을 확인한 후 고려대학교박물관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유물 실견을 하였고, 유물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1차로 출품 유물을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출품 유물에 대한 비

교 검토를 통해 전시내용에 꼭 필요한 유물이 추가로 선정되었고, 일부 유물은 출품에서 제외되는 과정을 거쳐 2차 유물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전시 출품유물이 전시스토리라인에 따라 일정부분 변동되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전시출품 유물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기관에 평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어 보험가입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어 선정된 유물에 대한 도록용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 유물의 사진촬영은 도록제작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 내용과 스토리 라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해외 전시의 경우에는 양기관의 담당자가 공동으로 배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록을 제작하는 측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진 촬영이 완성되어 촬영된 사진자료(슬라이드 원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듀프를 뜨고, 원본은 도록 제작을 책임지는 오사카역사박물관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전시유물에 대한 해설, 관련 논문 등을 의뢰 혹은 직접 작성하였다. 해외 전시였기 때문에 번역과 교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전시유물에 대한 설명 관련 자료들은 되도록 빨리 작성하여 상대기관에 보낼 필요가 있었다. 상대기관에서 여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과의 공동전시의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이 필요하였으므로, 번역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원고를 작성하였다. 번역의 경우 문화재 용어의 번역작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또한 논문이나 유물해설문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번역작업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번역가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아울러 번역과정상에서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도 정리하였다. 전시와 관련한 영상자료, 관련 사진자료 등도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하고 도록, 패널 등의 제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유물의 선정과 사진 작업이 마무리되어 문화재 해외반출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문화재 해외반출 허가신청서는 일반 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로 나누어 제출하게 되어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증명서, 사진이 첨부된 출품유물 목록, 전시계획서(전시기획안), 전시협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반출 사유서와 같은 것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시개최시기와 관련해서 보면 보험가입 증명서나 전시협약서 등은 허가신청서 제출당시에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협약을 체결한 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법적으로 문화재 해외반출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개최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문화재 해외 반출 3개월 이전에 허가신청을 한다. 특히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포함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재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해외문화재 반출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과정도 요청받아 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해외 전시를 준비하는 두 기관은 전시개최 결정 및 기타 전시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시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결하게 되는데,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은 전시협약서는 각각의 언어로 2부를 만들어 체결하였다. 전시협약서에는 전시품 목록과 전시품 보험평가액내역이 첨부되었다. 전시 협약서는 두 기관이 전시를 위해 사전에 협의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하였다. 전시협약서가 양측의 담당자에 의해 확인된 후 오사카역사박물관장이 고려대학교박물관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조건은 전시개최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일본측과의 공동전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내기관이 책임지고, 일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협상여하에 따라 조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스폰서가 있으면 예산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끝난 후 포장 및 운송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에는 문화재전문 포장 및 운송업체가 몇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대체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본부의 행정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직원 에 의한 단순한 공개입찰방식은 박물관의 포장재 등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³⁾ 이점에 있어 무조건적인 공개입찰방식이 아니라 해당 업체들의 견적가와 품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품목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국립기관의 경우에도 유물을 위한 포장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이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포장 및 운송기관이 상대기관의 포장 및 운송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업체였기 때문에 전시를 진행함에 있어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었다.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출품 유물중에는 수출에 있어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ites)⁴⁾과 관련있는 재질로 된 유물이 있었다. 즉 상아와 대모로 만들어진 호패, 붓, 갓끈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유물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경인지방 환경청⁵⁾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허가를 얻어 오사카역사박물관에 보내자 오사카역사박물관에서는 그것을 일본 세관에 사전에 알려 수입절차에 대한 허가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가마다 이 협약에 대한 문서양식이 다르고 해석의 차이도 존재하며,

3) 전문지식이 없는 본부의 행정직원 에 이루어지는 공개입찰을 통한 단순한 최저가의 산출은 포장재의 품질을 낮추게 되어 유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해외 전시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포장재 및 포장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규정도 상이하여 허가 문서를 준비할 때 상대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cites 마크가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동의 승인서>와 cites 마크가 없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증명서>와 같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문서양식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수출입 관련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국제협약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cites와 관련한 행정적 처리는 사전에 해외전시기관 및 관련기관, 운송업체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 준비가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시 스토리 라인 및 연출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의 공동전시는 전시실 도면을 통한 가상적 배치와 연출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즉 전시 스토리 라인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시유물의 크기, 전시 소주제 등에 맞는 배치가 중요한데, 전시방법에서 의견차이도 있었으나 유물의 손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기관의 의견존중도 필요하였다. 전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는 결과적으로 관람객을 위한 교육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므로 많은 검토

-
- 4)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의 약자인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이다. 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cites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다.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수출입허가부서, 수출입허가확인부서(세관 등), 단속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해야 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확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 국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협약은 부속서 1, 2, 3으로 구분돼 있는데, 부속서 1은 코뿔소와 고릴라, 안경곰, 사자, 호랑이, 용설난, 코끼리 등 멸종위기에 처한 5백57종을 선정,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학술연구목적으로 거래할 때는 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허가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새, 따오기, 흑두루미, 두루미, 재두루미, 산양, 가슴탄달곰, 쇠고래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 2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북극곰, 하마, 왕팬, 카멜레온 등 2백62종을 지정, 상업목적의 국제거래에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수리, 독수리, 새매, 고래목, 사향노루, 제주도의 한란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 3은 당사국이 자국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거래를 규제한다. 인도살모사, 네팔양귀비 등 241종이 있다.
- 5) 경인지방환경청의 인터넷 사이트(<http://kremo.me.go.kr/cites>)에 cites관련 허가 및 승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와 준비가 필요하였다.

유물대여와 마찬가지로 해외전시는 한꺼번에 많은 유물들이 해외로 반출됨으로 유물상태점검서(컨디션 리포트)가 필요하게 된다. 준비한 컨디션리포트에는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유물의 상태에 따른 전체사진, 세부사진들, 그리고 컨디션 체크를 국내에서 2번, 국외에서 2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국내에서는 유물을 포장하기 직전과 유물이 재반입된 후 포장을 풀어 확인하는 때에 하였고, 일본에서는 유물이 상대기관에 입고되어 전시실로 옮겨지기 전과 전시가 끝난 후 전시유물의 확인 및 포장하는 과정에서 하였다. 컨디션 리포트의 사진은 유물의 상태에 따라 최소한 2장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2-3장 정도면 충분하겠으나, 가구나 병풍 등과 같이 사방에 대한 사진이나 세부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더 많은 사진을 필요로 하였다. 유물의 상태점검은 양기관의 담당자가 전시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비교적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컨디션 리포트는 출품 유물의 양에 따라 많은 작업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였다. 출품 유물이 211점이고 사진을 평균 3-5장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700여장의 사진촬영이 이루어졌고 출품유물 수만점의 컨디션리포트 양식을 작성해야 하였다. 컨디션 체크기간도 양기관의 담당자가 유물을 실견하면서 일주일정도 진행하였다. 사전에 이러한 작업시간에 대한 고려가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해외 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개최지에서 도록, 초청장, 패널, 포스터, 팸플렛, 브로셔 등을 제작하는데, 일본측에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걱정하였던 부분중의 하나는 도록의 경우 사진의 색분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해 색분해된 상태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유물에 따라 유물 원래의 빛깔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해외에서 제작되는 많은 도록을 살펴보면 유물의 원래 빛깔과 다른 형태로 인쇄되어 발간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된다. 이 점은 물론 전시개최지에서 주도적으로 할 일이겠으나 일본에서 제작된 그동안의 전시도록을 살펴보면 한국과는 색분해가 차이가 많아서 유물의 원래 상태와 사진상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또한 도록에는 각종 번역문들이 함께 실리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전반적인 교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에서 직접 원고에 대한 교정작업도 실시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의 공동 전시 도록은 유물 해설 부분이 예산문제로 도록의 총페이지가 제한되었던 관계로 한글해석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여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해외 공동전시의 경우 되도록이면 양기관의 언어가 모두 도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해외 전시에 있어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통관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관에 통관에 관한 협조의뢰와 항공사에 문화재와 함께 화물기 탑승에 대해 협조를 의

되하게 되었는데, 통관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특히 영문으로 만들어진 출품유물목록이 필요하였다.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가 된 유물에 대해서는 통관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화물기 탑승문제는 항공사와의 이견으로 많은 의견조율이 필요하였다. 전시출품유물이 해외로 나갈 경우 양기관의 담당자가 유물과 함께 화물기에 탑승하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송회사와 전시기관, 항공사간의 화물기 탑승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데, 국내의 경우 항공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를 허가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항공사의 입장 때문에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오사카역사박물관의 공동전시의 경우 양기관의 담당자가 화물기 탑승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국내로 유물을 재반입하였을 경우에는 화물기를 탑승하지 못하고 여객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화물기에 탑승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국내 공항에서 유물 선적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국외 공항에서도 유물 하역절차를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객청사와 화물청사를 차량으로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여객기와 화물기가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이 도착하기까지 여객청사에 내려 기다리기도 한다. 실제로 유물 재반입시에는 공항에서 5시간가량을 기다려 유물 하역을 지켜보기도 하였고, 다음날 공항에서 다시 유물을 찾아오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였다. 양기관 담당자가 화물기를 탑승하는 것은 해외의 전시기관에서는 때에 따라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항공사와 운송회사, 전시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의 포장은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고 운송, 전시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장재, 포장방법 등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해외 박물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송업체가 포장과 운송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박물관 학예원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출품유물이 많았기 때문에 포장업체에 용역을 맡겨 포장을 진행하였다. 유물의 상태에 따라 학예원과 포장업체와의 많은 협의가 있었으므로 포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물의 포장과정에서는 오동나무 상자(小), 알루미늄 상자(大) 등이 사용하였는데, 박스마다 목록을 꼼꼼히 기록하여 해포과정에서 그 목록을 통해 유물의 포장상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것은 유물을 일본에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운송업체들이 반입상태와 거의 동일하게 포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유물 포장이 모두 이루어진 후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 화물청사까지 운송을 진행하였고 화물청사에선 화물기에 유물을 선적하는 과정을 체크하였다. 보통 항공기 선적의 모든 절차를 위해서는 항공기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4-5시간 전에는 공항 화물청사에 도착해야 한다고 한다. 화물청사에서는 항공기선적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수출과정이 끝나면 일본 공항 화물청사에서 수입과정으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여 오사카역사박물관 수장고로 유물을 입고시켜 유물의 운송과 그에 따른 호송을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운송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양기관의 담당자가 항상 동행하여 점검하였다.

입고된 유물은 한차례의 컨시션 체크를 하고 전시실에 옮겨져 전시 스토리라인에 따라 전시연출이 이루어졌다. 전시 연출은 사전에 두기관사이의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전시 연출을 마무리한 후 전시의 오픈을 위한 개막식 행사를 준비하였는데, 주로 일본측의 관례에 따랐다. 행사자체에 대한 준비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세심한 면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 개막식 행사에는 양기관 책임자, 관련기관 책임자, 후원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대학박물관의 해외 전시의 경우 총장, 부총장 등의 학교 책임자가 참석하는 것이 개막식 행사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전시기관 내에는 박물관 학예원이 전시기간동안 만약의 사태를 위해 체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인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전시기간동안 체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개막식 및 유물후송, 중간점검, 전시폐막 및 유물호송시에만 전시 담당자가 항상 함께 하는 방향에서 전시가 진행되었다.

42일간의 전시를 마치고 국내 유물 재반입을 위한 유물포장, 컨디션체크, 운송, 재반입 등의 절차를 수출의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끝내고 전시 유물이 박물관으로 반입된 후 최종적으로 유물 상태를 점검하였다. 문화재가 국내로 재반입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재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문화재 재반입 신고서에는 수출입관련 서류와 전시관련 홍보물, 도록 등의 관련 자료가 첨부되기 때문에 수출입시의 관련서류는 사전에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전시의 결과를 각종 자료와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전시 결과는 박물관장,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결과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와 같이 백서형태로 정리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계량적 수치와 비계량적 수치로 나타나는 전시 성과와 모든 전시 과정에 대한 자료는 향후 박물관 사업에 대한 학교 당국의 협조를 이끄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 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추후 같은 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해외 전시 기획에서부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해외 전시 기획과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전시의 성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른 상황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과정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글은 단지 고

려대학교박물관이 진행한 공동전시의 대체적인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일 뿐이다. 거의 준비 없이 작성한 글이지만, 해외 전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대학박물관 학예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전시관련 전 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충북대학교박물관에서 일본의 대학박물관과 공동전시의 형태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박물관 가운데 해외전시 특히 일본과의 전시를 경험하였다는 입장에서 전시 전체 과정에 대해 전시와 관련한 몇 가지 자료를 협조해 드린적이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이어 충북대학교박물관이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학박물관의 전시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학박물관에 대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해외에서도 훌륭한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